

35 자동차 트림조립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성별	남성	나이	62세	직종	자동차조립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근로자 ○○○은 1976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승용공장 차체부 대형버스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대형 버스부, 의장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2009년 12월에 정년퇴직하였으며, 평상시 특별한 질병력은 없었고, 2012년 10월 내시경 시행 및 조직검사에서 위암(adenocarcinoma) 진단받았다. 2012년 10월 시행한 PET-CT 상 위암4기(T4aN1)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식적 항암치료를 받다가 역학조사 기간 중(9월)에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은 근로자 나이 26세에 1976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형생산부 트림반을 시작으로 승용공장 차체부와 대형 버스부를 거쳐 2009년 의장 공정부서 근무를 끝으로 퇴직하였다. 대형 버스부 근무 당시, 선반 용접을 1년간 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작업한 용접의 종류는 CO2 용접이었다. 그 이후에는 여러 부서에서 주로 트림 조립작업에 2008년까지 종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1공장 의장에서는 트림도어 와이어링 작업, 의장부에서는 서브 ABS작업, □라인에서는 타이어 장착을 주로 하였고, □라인이 없어지면서 2009년 4월 의장부로 전출되었고 도어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 ○○○의 주요 업무였던 트림 조립은 차량 내부에 들어갈 트림을 내측 패널에 고정되도록 장착하는 것이다. 작업과정에서 변속기 오일 주입 등을 할 수도 있으나 동료근로자와의 전화면담을 통해 ○○○의 작업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은 조립작업만 하였으며 변속기 오일 주입 등의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동차 배선 및 배관작업과 관련된 와이어링 작업의 경우 예전에는 겨울철에 와이어링 작업에 사용할 고무 배선을 보온 부스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그것을 가열해서 사용하였는데, 이 때 고무 흡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의 경우 와이어링 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 노조, 작업근로자 모두 전리방사선, 석면관련 노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유기용제)

5 의학적 소견

○○○은 특별한 과거력이 없었고, 정기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2009년 12월 정년퇴직 후 2012년 10월 건강검진 목적으로 방문하여 시행한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부위의 조직검사결과 암세포(adenocarcinoma)가 발견되었으며, 2012년 10월 시행한 PET-CT 상 위암4기(T4aN1)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식적 항암치료를 받았다.

6 고찰 및 결론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고무제조업, X선과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는 석면, 무기 납 화합물, 섭취된 질산 등이 있다. 비직업적 위험인자로는 헬리코박터균과 만성 위축성 위염, 흡연 등이 있다. 근로자의 직업력 상 화학물질 노출이 거의 없으며,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발암물질은 없다. 또한, 위암 발병 가능 직업적 유해인자인 전리방사선, 석면에 노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위암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끝.